

교회 예배 시 함께 고백하는 신앙고백에 대해 간단히 설명 드립니다.

사도신경 가장 많이 알려진 신앙고백이자 대부분의 한국 개신교회 예배시 고백합니다.

니케아신조 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세상의 모든 교회가 이단을 물리치고자 합의한 신앙고백
개신교회, 가톨릭교회, 정교회 등 세상의 모든 보편교회가 함께 고백합니다.

감리교 교리적선언 한국감리교회만의 신앙고백으로서 한국감리교회 최초의 문서화된 신앙고백입니다.

1. 성령강림 후 제1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우리의 삶 되기를 기원합니다.

2. 6월 정기 임원회가 있습니다.

3. 교회학교와 기도모임과 불어 통역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학교 예배 : <매월 2, 4주일 예배시>

-여선교회 기도모임 안내 : <매월 격주 금요일 저녁, 인도자 양승희 집사>

-불어 통역 예배 : <매월 마지막 주일, 담당자 홍기원 청년회장>

3. 6월 생일자 : 17일 박소영 청년, 20일 양승희 집사, 21일 신주영 형제. 모두 축하드립니다.

4. 기도회 인도자 다시 안내합니다.

5/14 김주는 집사, 5/21 김수미 성도, 5/28 양승희 집사, 6/4 정원철 집사, 6/11 홍기원 청년,

6/18 김정수 집사, 7/2 신미영 성도, 7/9 김태균 집사 순서로 진행합니다.

다음 주 성서 일과 (성령강림 후 제2주)

제1말씀 : 호세아 5:15-6:6

제2말씀 : 로마서 4:13-25

시편교송 : 시편 33:1-12

복음서 : 마태복음 9:9-13, 18-26

예배 봉사 담당자

6월 11일

6월 18일

대표기도 : 공동기도

공동기도

제1말씀 봉독 : 김주는 집사

김태균 집사

제2말씀 봉독 : 홍기원 청년

이희주 청년

복음서 봉독 : 집 레 자

집 레 자

6월 예배안내 봉사자 : 양승희 집사

안내

예배시간 및 교통편 안내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담임목사에게 하시면 됩니다.

교회 등록 절차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파리중앙감리교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는 기독교 대
한 감리회 중앙연회 유럽지방 소속입니다.

(Association Culturelle de L'Eglise Methodiste
Coréenne De Paris)

교회에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예배에 참석하신 후
새신자 등록 카드를 작성하셔서 담임목사에게 면담
을 신청해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교회의 교인으로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예배시간

주일공동예배 : 매주일 오후 2시

예배 후 기도회 : 매주일 예배 후 진행

오시는 길

17 bis, Rue Bayard 75008 Paris

메트로 1, 9호선 Franklin Roosevelt

메트로 1, 13호선 Champs-Élysées Clemenceau

교회 홈페이지 <http://emcp-france.com/>

2023년 주제 : “새 힘과 소망으로 이루어가는 교회”

“보아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

(요한계시록 21:5)

우리는 이러한 교회를 지향합니다.

예배함으로 참 기쁨과 진리를 얻는 예배 공동체

날마다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공동체

세상의 영광보다 예수의 길을 따르는 신앙 공동체

삶으로 하나님의 창조세계와 평화를 가꾸는 생활 공동체

오늘의 묵상

기도하는 자세 : 경청하기

헨리 나우엔의 <영성수업> 중에서

누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를 기르려면 시간
이 걸린다. 우리 모두에게는 듣지 않으려는 강한 저항이 있다. 우선 우리는 자신의 빈 공간
을 마련하고, 자신을 장악하고 선점하고 있는 것들을 잠시만이라도 내려놓기를 몹시 어려워
한다. 우리는 빈 공간에 대한 두려움으로 고생한다. 우리는 유용성, 효율성, 통제력에 너무
연연한 나머지 무용하고 비효율적인 통제가 안 되는 순간이 오면 겁에 질린다. 그래서 뭔가
실속 있는 일이 있는 안전지대로 곧장 달아난다.

그러나 빈 공간에 대한 두려움보다 더 강한 것은 실제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대한 우
리의 두려움이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며, 그분 안에서 안식처를 찾는 것 외에는 우
리의 불안과 귀먹은 상태에 대한 처방책이 없음을 아시는 분임을 우리는 안다. 하나님의 자
비는 엄한 자비라서 버릇이나 응석을 받아주지 않고 진리의 처소인 마음을 쫓겠다는 것도 우
리는 안다. 그래서 우리는 불만족과 미진함을 느끼면서도, 하나님이 가라고 부르실 수 있는
방향으로 정말 가고 싶은지 자신이 없다. 우리의 자아상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빚으려고
하시는 상과 같은 것인지 자신이 없다. 하나님의 음성을 정말로 들은 사람들은 친숙하고 비
교적 편안한 곳들을 떠나서 선뜻 가고 싶지 않은 곳들로 가라는 부름을 종종 받았다. 이집트
의 고달픈 확실성이 광야의 종잡을 수 없는 방향보다 더 나아 보인다고 모세에게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경우가 그랬다. 그리스도를 따르다가 박해와 괴로운 시련을 당해야 했던 많
은 남녀들의 경우도 그랬다.

다른 것들로 꽉 찬 상태와 산만한 상태도 저항의 한 형태인데, 그런 저항이 있으면 우리 삶
의 진리들을 볼 수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고, 영적인 삶을 살 수 없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려면 우리의 주목을 끌려고 다투는 다른 모든 음성들에 대하여 저항을 구
축해야 한다.

주일예배 순서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진실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합니다.

☞ 표는 자리에서 일어섭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은 앉아 계셔도 괜찮습니다.

성령강림 후 제1주

☞ 집례 : 박재현 목사

개회의 예배

침묵기도 Temps de Silence et de Recueillement	다함께
개식사 Paroles d'accueil	집례자
☞ 입당송 Cantique	39 장 주 은혜를 받으려 다함께
☞ 인사 Salutation de paix	☞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 주님, 우리와 온 세상에 평화를 허락하소서. 다함께
☞ 죄의 고백과 용서 Prière de Repentance et Annonce du Pardon de Dieu	다함께
☞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마음을 열어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주님 이신 예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자신을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 (각자) 참회의 침묵 기도를 드립니다.	
☞ 주님이 주시는 용서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에베소서 1:6-7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미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의 피로 구속 곧 죄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 경배와 찬양 Cantique	41 장 내 영혼아 주 찬양하여라 다함께
☞ 신앙고백 Confession de Foi	사도신경 (새번역) 다함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 성시교송 Psalms du jour	시편 8편 (구약 743쪽)	다함께
☞ 영광송 Spotane	3 장 성부 성자와 성령 십자가를 향하여 서십시오	다함께

예배를 위한 기도 Prière

박재현 목사

말씀의 예배

오늘의 말씀 봉독	예레미야 (Jérémie) 23:33~40 (구약 1111쪽)	황유란 집사 박소영 청년
요절 (예레미야 32:33)	“이 백성 가운데 어느 한 사람이나 예언자나 제사장이 너에게 와서 '부담이 되는 주님의 말씀'이 있느냐고 묻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여라. '부담이 되는 주님의 말씀'이라고 하였느냐? 나 주가 말한다. 너희가 바로 나에게 부담이 된다. 그래서 내가 이제 너희를 버리겠다 말하였다고 하여라.”	
설교 Prédication	주님의 말씀마저도	박재현 목사
찬송 Cantique	390 장 예수가 거느리시니	다함께
봉헌 및 기도 Prière d'offrande		집례자

폐회의 예배

교회소식 Annonce		집례자
☞ 결단의 찬양 Cantique	459 장 1.3절 누가 주를 따라	다함께
☞ 결단의 선포 Proclamation	☞ 교우 여러분, 이제 주님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삶의 자리로 담대히 나아갑시다. ☞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소서. 아멘.	다함께
☞ 축도 Bénédiction		다함께